

# 당신본풀이와 마을의 역사\*

-안덕면 감산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정식\*\*

## <목 차>

1. 머리말
2. 당신본풀이 자료 검토
3.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
4. 당신앙의 형성과 변천
5. 당신본풀이와 구비역사
6. 맺음말

## 1. 머리말

당신화인 당신본풀이는 당신앙의 내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를 담고 있다. 당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이므로, 당신본풀이는 공동체의 신앙과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신화와 공동체, 신앙을 아울러 다루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상호 관련되는지 살핀 사례가 없지 않다.<sup>1)</sup> 이 부

\* 이 글은 제주신화읽기모임(2004년 7월 10일, 제주전통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하였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강사

1) 金和經, 「西歸浦 本鄕堂 본풀이의 構造分析」, 『口碑文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研究室, 1981).

高光敏,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송당·세화·귀당 본풀이의 경우」, 『耽羅文化』 2호(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3); 「行政圈과 信仰圈」, 『濟州島 研究』(韓濟州島研究會, 1989).

文武秉, 「마을의 실촌과 당본풀이②: 평대리 수대깃당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얼』 4호(한 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 국어과, 1989); 「마을의 실촌과 당본풀이: 성산읍 은평리의 경우」,

분의 연구는 당신본풀이와 당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연구를 진행하는 빌미로 삼는다.<sup>2)</sup> 이 글에서는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핀다.

당신본풀이는 구비서사시이면서 특히 구비역사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본다. 일반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 비하여 당신본풀이가 단골들의 역사적 체험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산리에는 당이 셋 있고 당마다 전하는 본풀이가 따로 있으며 당의 성격이 각기 다른 만큼 본풀이도 유형이 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적어도 당신본풀이에는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에 대한 정보를 두루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것은 문헌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 하다. 이것이 바로 당신본풀이가 지닌 구비역사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본풀이가 과연 어떠한 구비역사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따라서 당신본풀이가 지닌 구비역사적 성격의 정체를 충분히 밝히는 것이 과제이다.

당신본풀이는 공동체의 신화이므로 공동체와 그 역사를 함께 한다. 문헌 기록이 없어 공동체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대체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다. 마을의 입지조건이 당신앙과 본풀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한 마을의 역사는 터잡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는 입지조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서 마을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치는 것은 식수이다. 그런데 식수로 쓸 수 있는 샘은 바닷가에서나 얻을 수 있다. 감산리는 마을 안으로 일

『白鹿語文』 7집(濟州大學校 國語教育學會, 1990).

이문용, 「제주도의 당제에 나타난 혈연성과 지연성」, 『한국의 사회와 역사』(최재석교수 장년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1991).

송인정, 「제주도 본향당의 세력권 변천에 관한 연구: 동촌 지역을 중심으로」(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 김현선은 이 방면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 5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9).

주도로가 통과하지만 바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사실상 바닷가 마을(대평리)과 중산간 마을(상창리)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물이 귀하지는 않았다. 마을 앞에 계곡이 있어서 가뭄에도 사철 물이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샘이 솟는 특이한 여건을 갖춘 마을이기 때문이다. 사람살이의 여건이 좋은 탓에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신앙의 내력은 본풀이와 공동체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마을의 당은 ‘통물’, ‘도고세미’, ‘앞내’에 있는데, 각각 本鄉堂, 일렛당, 으드렛당으로 기능이 제각기 다르다. 제주도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당이 모두 있는 셈이다. 왜 계통이 다른 신당이 한 마을에 함께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본래 이러한 양상으로 존재하던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이것도 시대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것은 공동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야 하겠다.

당신본풀이의 구비역사적 성격은 공동체의 내력과 당신앙, 그리고 당신화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며 이들을 상호 관련지어 살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당신본풀이 자료 검토

당신본풀이는 당신앙의 내력과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에 대하여 알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물당, 도고세미당, 호근이마루당의 본풀이가 모두 채록되어 소개된 바 있다. 이들 자료는 모두 이웃 마을 창천리에 거주하던 고창학 심방이 구연한 것으로, 조사자는 현용준과 진성기이고, 조사 시기는 1959년 어간이다. 역시 기존 자료집에 소개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본풀이의 내용

통물당은 일찍이 상창하르방당으로 소개된 바 있다.<sup>3)</sup> 통물당 본풀이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 (1) 남편들판고나무상태자 하로산은 한라산 정상 서쪽 어깨에서 울축 삼월 열 사흘 유시에 아홉 형제로 솟아났다.
- (2) 무등이앞에 이르러 황서국서와 활쏘기 내기를 하여 굴복시키고 집사로 삼는다.
- (3) 통물동네에 이르러 뱀으로 화하여 기다리다가 사냥하던 유씨, 김씨, 강씨 포수를 만났다.
- (4) 이들을 단골로 삼아 큰 팽나무 아래 좌정하여 제향을 받게 되었다.
- (5) 광주서씨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sup>4)</sup>

전형적인 한라산신계 본풀이에 해당한다.<sup>5)</sup> ‘하로산’은 한라산이 그대로 신명으로 쓰인 것이다. (1)에서처럼 하로산신이 한라산에서 乙丑 3월 13일에 솟아났다고 하는 것은 흔히 보는 바이다. 이는 <三姓神話>에서도 거뜬나 타난다. 9형제가 함께 솟아나 도내 여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하며 그 계보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둘째를 제외하고는 동쪽 성산읍에서 서쪽 일과리까지 대체로 순서대로 자리잡았다.<sup>6)</sup>

한편 (2)에 제시된 황서국서와 활쏘기 내기를 하여 승리하였다는 대목도

- 
- 3) 당이 자리 잡은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상창리에 해당한다. 상창하르방당이라고 불리는 까닭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산리 통물동네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통물동네 북쪽에 있는 신남밭 동네 역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창리에 속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감산리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용준, 진성기 모두 상창하르방당, 상창본향이라고 하였다. 본풀이는 다음 책에 실려 있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762~763쪽. 이하 書名을 『사전』으로 줄이고 해당되는 페이지만 밝힌다. 진성기, 『남국의 무가』(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687~690쪽. 이하 書名을 『무가』로 줄이고 해당되는 페이지만 밝힌다.
  - 4) 『사전』, 762~763쪽.
  - 5) 한라산신계를 포함한 당신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 글 뒷부분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 6) 지나치게 정연하니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대에 나타난 당신상의 성쇠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주목된다. 활쏘기를 통한 경쟁과 유사한 사례는 다른 당신본풀이에서도 더러 발견된다. 활쏘기를 통한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함으로써 당신의 영험함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동백자 하로산은 통물에 좌정할 때까지 여러 곳을 거치는 동안 주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이 물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통물에 좌정한 뒤에는 마을 사람들로 부터 섬김을 받기 시작한다. (3)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은 뱀의 몸으로 변신한 뒤의 일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유침의서(柳宅에서) 당 서립(設立)허엿젠 허주, 그 당. 그 버금 켜 우리 선세(先世)가 이 당 서립허엿젠 허주. 왜 그러냐. 당동산이라고, 요디 당을 매어났다가 그 당 맨 앞밭디(앞밭에) 우리 선세가 집을 허연 짓게 되니, 하 거 버엿덜이(뱀들이) 막 그자 나오란 무신 거 허여. 우리 선세가 그디 집을 짓어 어디 다른 되서 그뉘 이전 허여(移轉해서) 가려고 허니. 하 그거 뉘인가 집을 짓어 가지고 처슬을 허젠 허니, 아 처슬 가지에 버엿이 지랑지랑 막 걸어전. 전설말로 들은 말이주. 아 움직을 안 헌단 말여. 에 이전 못 쓰겟다고 옛날은 거 억센 하르방덜이난. 당을 이서(移徙)해 불자고 아, 이서허여부려도, 아 그거 베엿은 흑질허젠 허니 흑질 역군(役軍) 사람덜을 오몽 못허게 해부려. 글로 강 박아져 절로 강 박아져. 애들아, 내가 이 집을 짓지 말라고 경허는 거니까니. 당 이양도 우리 집의서 이제 집의 녁것젠(넘겼다고) 허주게. 경허니 상단골은 유침(柳宅), 중단골은 우리 집(金宅), 하단골은 우리 뉘골목 강침(姜宅).

김인표(남·80세), 1996. 1. 13. 강정식 조사.

통물당 근처에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 내용은 당의 영험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이한 것은 당신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당신본풀이에서도 동백자 하로산이 뱀으로 변신하여 단골들을 기다렸다고 한 점과도 관련된다.

한라산신이 뱀으로 나타는 사례는 드물다. 신격이 뱀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조상신본풀이와 으드렛당 본풀이에서는 흔히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조상신본풀이나 으드렛당 본풀이의 뱀신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라산신 계열도 함께 공유하던 것임이 확인된다. 그래서 조상신으로서는 뱀신의 성격이 뚜렷하던 것이 당신으로 전환되면서 더러 인격신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한편 동백자 하로산은 좌정한 뒤에 서백자 광주 서씨부인과 혼인을 한다. 이 대목에 이르러 하로산신의 '영웅적' 일대기가 완성된다.<sup>7)</sup> 그러나 남녀 신격의 만남과 후일담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서씨부인은 덕수리 광정당과 관련되는 신격이라고 한 점은 따로 재론해야 할 사항이다.

도고세미 일렛당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토조본향은 예래 동백자하로산, 족다리 대서부인의 다섯째 딸로 태어났다.
- (2) 부모에게 미움을 사 쫓겨나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 (3) 사냥하던 조천관 김준의 아들과 만나 부부가 되었다.
- (4) 백사슴을 쏘아 잡아먹다가 큰비로 불어난 냇물에 휩쓸려 감산리 도고세미에 이르러 당신으로 좌정하여 제향을 받았다.<sup>8)</sup>

여성신을 주인공으로 한 본풀이다. 도고세미 일렛증저는 예래본향당 동백자 하로산의 딸로 모두 여섯 형제인데 각기 인근 마을로 흩어져 자리잡았다. 다섯째인 도고세미 일렛증저는 부모 눈에 거슬려 쫓겨났으며, 방황하다가 짐준윗(金尊位) 아들을 만나 혼인을 하였다. 그런 뒤에 도고세미에 좌정하여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다.<sup>9)</sup>

7) 동백자 하로산, 서백자 광주서씨부인의 구도는 예래본향당의 동백자 하로산, 족다리 대서부인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광주서씨부인은 족다리대서부인과 같은 신격이며 따라서 신명도 연관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8) 『사전』, 765-767쪽.

9) 여성이 부모로부터 쫓겨나 온갖 고생을 겪다가 혼인을 한 뒤에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

일뤼당의 본풀이이고 그 주인공은 여성이다. 남성신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 본래 남성신인 짐준잇 아들은 산신으로 수렵수호신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당의 단골들이 수렵을 생업으로 삼던 집단의 후손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짐준잇 아들이 '더데오름'에서 사슴을 쏘아 먹으며 내려왔다고 한 데서도 수렵신의 성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남성신은 계보도 언급되지 않은 채 출자만 간략하게 제시되었을 뿐이다.

남녀 신격의 만남-결연-좌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냇물에 휩쓸려 내리다 도고세미에 좌정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른 지역에서도 간혹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일뤼중저의 부모는 예래의 동백자 하로산과 족다리 대서부인이라고 하였다. 한라산계 계보에 따르면, 예래의 동백자 하로산은 통물당에 좌정한 동백자 하로산의 형에 해당하는 신격이다. 본래 같은 신앙권이었으니 통물당 동백자와 도고세미당 짐준잇 아들의 출자가 같거나, 도고세미 일뤼중저의 출자가 통물당과 연관되어야 할 듯한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한지는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해답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 본풀이는 다음과 같다.

- (1) 조천 이훈장 따님이 신병이 들어 돌아다니다가 정의 호근이에 이른다.
- (2) 오좌수를 만나 사정을 말하고 부부 인연을 맺는다.
- (3) 칩을 들일 수 없는 때라 오좌수가 도망을 가버린다.
- (4) 이훈장 따님이 오좌수 집을 찾아가니 큰부인이 오좌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

는 <서동설화>, <삼공본풀이> 등에서 보던 내용이다. <삼성신화>에 보이는 벽랑국 세 공주의 도래담도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의 변형일 수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예래계 본풀이의 완성형이 부자로 살던 부모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는데 도중에 남자를 만나 부부가 된 뒤에 잘 살게 된다는 구도를 이룬다는 점이다.

- (5) 먼 문 밖에 집을 짓고 이혼장 따님을 살게 한다.  
 (6) 오좌수가 죽은 뒤에는 가족들의 박대를 받다가 죽어 당신이 된다.<sup>10)</sup>

이혼장 따님은 이씨할망, 黃土夫人 등으로도 불린다. 신명으로는 黃土夫人을 쓰기로 한다. 黃土夫人의 내력도 도고세미 일뤼증저의 일생과 유사한 점이 있다. 곧 부모와 이별하여 방황하다가 오좌수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며 나중에는 당신으로 좌정하여 섬김을 받는다는 점이 일치한다. 그러나, 黃土夫人은 도고세미 일뤼증저와는 달리 남성인 오좌수에게 버림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결국 원만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恨을 품은 채 죽은 黃土夫人은 堂神이 된다.

본풀이 내용으로 보아 이 당은 好近里 계통의 당이다.

호근이 가지 갈라, 올라 하로산은 우으로는 선달피 감티에 황골피 발에 신고 귀 약통 남날개 소리 좋은 마새조총 들러메고 목 좁은 약도리 둘러지고 총산쟁이 개산쟁이 짐패산쟁이 거느려 심심산중 올라가서 노리 대각록 즈룩사슴 마쳐놓고 간혜 석석 먹어놓고 거느리던 하로산은 상단골은 오좌수 중단골은 백좌수 하단골은 허좌수 거느리던 으드레한집.

이 자료의 첫 대목이다. 당신은 하로산, 상단골은 오좌수, 중단골은 백좌수, 하단골은 허좌수라고 하였다.<sup>11)</sup> 이 대목만으로도 독자적인 본풀이를 이룰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대목은 전체 줄거리와는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로산’은 곧 ‘漢擎山’이니 山神이며 수렴신이고, 黃土夫人은 女性神이면서 治病神이다. 곧, 이 본풀이는 한라산신의 본풀이에 으드

10) 『사전』, 767~770쪽.

11) 백씨, 허씨 등은 제주도에서 그리 흔한 성씨가 아니다. 서귀포와 남제주군 서부지역에서 서귀포 일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성씨들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호근본향당 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전승이 그 골자만 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까닭은 호근본향당과는 달리 으드렛당신의 본풀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렛당신의 본풀이가 더해진 형태이며, 이 당은 生業守護神과 치병신을 함께 모셨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산신 본풀이와 치병신 본풀이의 결합, 산신과 치병신의 동좌, 여드렛당신의 부상 등에서 현재 호근본향당의 사정과 일치하는 면이 많다.

당신본풀이를 통하여 당신앙의 내력과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추정할 바 있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에서 뚜렷하게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써 추정은 사실과는 다름이 확인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

## 2) 본풀이에서 옛본 공동체의 역사

본풀이에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풀이가 구비역사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풀이에서 가능한 대로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과 관련지을 만한 사항을 뽑아보기로 한다. 통물당 본풀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목된다.

- (1) 당신은 산신이고 단골은 포수이다.
- (2) 동백자 하로산은 기존의 황서장군을 굴복시키고 좌정한다.
- (3) 상단골은 류씨, 중단골은 김씨, 하단골은 강씨이다.
- (4) 이 당은 통물, 상창, 창천, 상예2구 사람들이 함께 모시던 곳이다.

(1)은 공동체의 신앙이 수렵과 깊이 연관됨을 알려준다. 따라서 공동체의 주생업이 수렵과 관련된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원시적인 생업 형태가 본풀이에 반영되어 있는 셈이고 따라서 이 본풀이는 매우 오래 전에 형성되었다고 해야 한다.

(2)는 새로운 신격이 기존 신격을 물리치고 좌정하였다는 말이다. 이미 이 마을에는 황서장군이라고 하는 장수신이 있었는데 새로 이주해온 신격인 하로산에게 쫓겨난 셈이다. 결국 이른 시기에 새로운 신앙이 유입된 사실을 반영한 것일 수 있겠다.

(3)은 공동체 가운데 류씨가 가장 으뜸이었고 그 다음이 김씨, 셋째가 강씨였다는 말이다. 이것은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순서일 수도 있고 당산이 현재와 같은 모양새를 갖출 당시의 세력 판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4)는 전체 단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려준다. 통물을 중심으로 상창, 창천, 상예 사람들이 크게 보면 한 공동체였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상 네 가지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도 분명한 것은 없다. 본풀이 자체만 가지고는 공동체의 역사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다른 본풀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도고세밧당 본풀이를 보기로 한다. 도고세밧당 본풀이에서 공동체의 역사와 관련지을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 (1) 당신은 산신과 일뿔당신 부부이다.
- (2) 일뿔당신은 예래본향당신의 다섯째 딸이다.
- (3) 단골은 묵은터 고씨이다.
- (4) 감산, 창천, 상창, 상예2구 사람들이 함께 모셨다.

(1)에서는 남성신이 산신이므로 공동체의 생업이 수렵일 수 있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통물당 본풀이에서와는 달리 단골들이 어떠한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2)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예래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계보화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3)에서는 감산리 묵은터 고씨 집안 사람들이 독점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었거나 이들이 묵은터 동네를 설촌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에서는 감산을 중심으로 이웃 창천, 상창, 상예2구 사람

들이 넓게 보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마을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그나마 (3)이다. 다른 단골이 제시되지 않고 고씨 한 집안만 제시되었으니, 이들이 묵은터의 주요 세력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들이 묵은터라는 동네를 설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다시 (2)와 관련지어 보면, 통물당과 예래본향당은 형제 관계인데 도고세밋당은 굳이 통물당과 관련되지 않고 예래본향과 관련되니 여기에서 통물과 묵은터 동네 사람들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사항에서는 이웃 마을과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그 중심적인 위치에 감산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정도의 단서를 얻었을 뿐이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 본풀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 (1) 남성신은 호근이 오좌수, 여성신은 조천 황토부인이다.
- (2) 황토부인은 신병이 나서 돌아다니다 오좌수와 인연을 맺었다.
- (3) 단골은 오씨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호근리와 연관성이 많은 듯 하다. 단골이 오씨로 제한되는 점도 주목되는 바다. 마을 역사와 그리 관련되는 바를 찾기 어렵다. 황토부인은 무병을 앓다가 원혼이 된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오씨 집안의 조상신본풀이나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풀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드러 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본풀이는 역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풀이의 문면만 살핀 셈이다. 본풀이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르는 아니므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3. 마을공동체의 역사

마을 단위의 역사는 주로 인적 구성원의 변동 차원에서 살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설촌과 관련된다. 처음 취락을 형성하고 주요 성씨들이 이주해오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마을을 이루게 된다. 들쭉는 통혼과 관련된다. 일단 설촌과 주요 성씨 집단의 이주가 완료된 뒤에는 별다른 인적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때부터는 오로지 혼인을 통한 여성들의 유입만이 변화 요인이 된다.

인적 구성원의 변동은 곧 당신앙의 변화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그 변화는 본풀이에도 다시 반영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를 인적 구성원의 변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설촌과 주요 성씨의 이주

감산리에서도 고인돌, 바위그늘집자리 등이 발견된 바 있으니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선사시대 이후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나마 있는 문헌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감산 마을이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읍지류와 고지도 등 뿐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읍지류에는 감산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 없다. 다만 일부 지명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紺山, 紺山川이다. 감산은 마을 동쪽에 있는 신산오름 혹은 마을 이름이고, 감산천은 지금의 안덕계곡이다.<sup>13)</sup>

12) 감산리 경내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에 대해서는 남제주군·제주대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남제주군·제주대박물관, 19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오늘날 紺山은 紺山으로 쓴다. 안덕계곡을 흐르는 내는 창천리에서는 창곳내, 감산리에서는 앞내, 도곳내, 화순리에서는 벗내로 불린다. 창천의 고유 이름은 창곳내, 화순의 고유 이

고지도에는 감산이 마을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감산리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들까지 포괄하는 매우 넓은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일대에는 예래와 대정 사이에 즈단리(서광리·동광리)만 있을 따름이고 보면 이 지역에서 감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sup>14)</sup>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감산리는 최소한 창천, 상창, 대평 등 이웃을 두루 아우르고 있었던 셈이다. 감산으로 지칭된 이들 지역은 크게는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되고 아울러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마을이 나뉘기 시작하였는지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18세기말에는 감산, 통물과 창천이 이미 나뉘어 있었다.

조선 세종 12년(1430)과 25년(1443)에 대정현청을 감산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거듭 있었다.<sup>15)</sup> 그만큼 감산리는 인근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인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일제시대 한때는 면사무소와 지서 등 주요 관공서가 감산리에 자리잡고 있어서 면소재지와 같은 구실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최근세까지도 감산리의 중심적 위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름은 뱃내이다. 감산리에서도 옛날에는 감산내라고 하였다고 하니, 모든 마을명이 안덕계곡을 지칭하는 지명과 연관이 있는 셈이다.

- 14) 그렇다고 해서 감산이 그리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耽羅志』 건치 연혁조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東·西道로 나누어 縣村을 설치하였는데 그 현촌으로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洪墟, 猓來, 山房, 遮歸 등 14개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감산이 들어 있지 않고 대신 이웃 산방, 예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산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산방이 바로 감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마을지』(감산리, 2002).

- 15)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6월 계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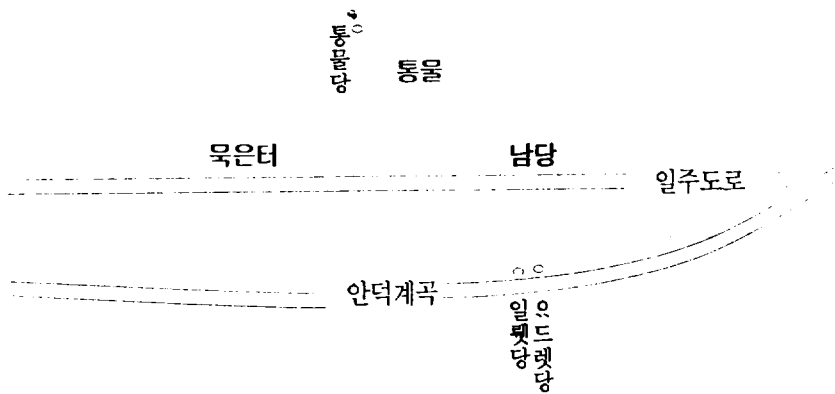
“世宗十二年六月癸酉 濟州敬差官司業少尹朴好門啓 旌義 大靜 兩縣 城內皆無水泉 故旌義則 汲水于十五里許 大靜則五里許 高有倭寇圍累日命判府事崔閔德 工曹參判朴坤等同議 庶曰 旌義 大靜城內若無井泉則當依好門所啓 兩處移設便否及可移處今 敬差官 同按撫使看審命下兵曹”

-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 정월 병인조

“濟州安撫使馳啓 今因兵曹移文 審旌義縣城內 賢無泉脈 成南有川 水深不竭 可移城於此 大靜縣城內亦無泉脈 邑城之東三十九里許 泉水湧出 源源無窮 敵不能侵 可移城於此 且邑城之東十六里 甘山里 巖東南高山 臨壑城中 然泉水湧出 旱而不涸 弓矢不汲亦可移城於此”

과거 감산리에서 중심을 이루던 곳은 묵은터동네와 통물동네이다. 묵은터동네는 일주도로변에 자리잡고 있다. 안덕계곡과 그곳에서 솟는 샘들을 의지하여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통물은 일주도로 북쪽에 있는 동네이다. 통물이라는 샘을 의지하여 형성된 동네이다. 한자로 표기할 때는 흔히 '通泉'이라고 하였다. 묵은터동네의 동쪽에는 다시 남당동네가 있다. 이곳 사람들도 안덕계곡에서 솟는 샘에 의지하여 살았다. 묵은터동네는 화순리, 대평리와 가까운 곳에 터잡은 셈이고, 통물동네는 상창리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셈이며, 남당동네는 창천리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산리 사람들은 밭농사를 주로 지었다. 목축에도 그다지 힘쓰지 않았다. 마을 경계 안에 바다도 포함되어 있으나 바다일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밭농사에 의지해온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묵은터동네와 통물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이 두 동네 사람들의 내력은 같지 않다. 묵은터동네는 고씨가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고 통물동네는 류씨와 김씨가 모여 살았다. 그런가 하면 남당동네에는 오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렇게 된 연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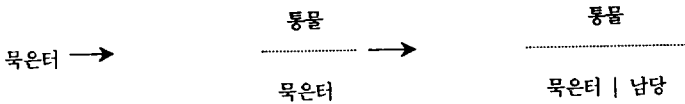


감산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 전 일이겠지만, 이들이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연적인 조상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1430년에

대정현 이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때 이미 마을이 이루어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찾을 길이 없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16세기에 들어서야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마을 사람들의 조상이 먼저 취락을 이루어 살던 곳은 묵은터동네라고 한다. 여러 성씨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고씨가 가장 이른 시기인 1574년경에 입촌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정현 이설 논의가 있는 지 무려 150년 가까이 늦은 시기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 류씨가 1592년경에 통물동네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김해 김씨가 이보다 훨씬 늦은 시기인 1644년, 1695년경에 답단이와 통물동네에 각기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대성의 하나인 진주 강씨는 1650년경에 묵은터동네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군위 오씨는 이들보다 늦은 시기에 입촌하였으며 이들은 대개 창천리 지경에서 살던 이들이었다.<sup>16)</sup>

설촌 이후 각 동네별로 주요 성씨가 모여 살았는데, 묵은터-고씨, 통물-류씨·김씨, 남당-오씨 등이다. 설촌 당시부터 주요 성씨 중심의 취락이 성립해온 과정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성씨 중심 취락의 성립 내력은 당신앙의 형성, 변화 양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산리 인구에 대한 기록은 『제주읍지』 중 「대정현지」(1780~1789년 추

16)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감산리, 2002), 109~110쪽, 473~528쪽. 족보의 기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주요 성씨의 입촌 내력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다.

정)에 처음 보인다. 당시 감산리는 대정현 우면에 속하였으며 감산마을과 통천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감산리는 묵은터동네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었고, 통천리는 통물동네와 현재의 상창리 일부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었다.

읍 명	면명	리 명	호	구	남	녀	비고
대정현	우면	감산리	61	338	136	202	
		통천리	43	229	93	136	
		합 계	104	567	229	338	

본래부터 묵은터동네가 통물동네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음이 확인된다. 감산과 통천을 합한 호수와 인구는 전체 안덕면 마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었다. 설촌 200여 년만에 인구가 567명으로 늘었다.<sup>17)</sup> 이 당시에 이미 창천리, 상예리 등은 좌면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도 주목되는 바이다. 마을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설촌 내력이 지나치게 후대로 끌어내려졌음이 확인된다.

1905년 이후에 통물동네가 감산리에 통합되었으며, 1915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는 창천리에 속했던 남당 동네의 일부가 역시 감산리에 귀속되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sup>18)</sup> 감산리와 창천리가 분리된 것이 최근의 일이었다고 하는 주민들이 더러 있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다.

현재 감산리에는 40여 성씨가 살고 있다. 강씨가 297명(28.2%), 이씨가 134명(12.7%), 김씨가 131명(12.4.%), 고씨가 111명(10.5%), 오씨가 106명(10.1%)이

17) 창천리는 1674년에 설촌하였다고 한다. 『제주읍지』에 1780년대 당시 창천리 호구는 85, 인구는 461명이었다고 하였다. 100년 만에 인구가 460명이 된 셈이다. 설촌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해도 지나치게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셈이다. 설촌 내력담이 실증적인 근거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 설촌유래에서는 성씨별 입촌 순서 정도가 수용 가능한 사실로 인정된다.

참고로 비슷한 시기의 인구 변화를 견주어 보면, 1669년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는 42,700명, 1816년에는 61,795명이었다(『제주도지』, 459쪽). 150년간의 사이에 19,095명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감산리나 창천리의 인구 증가율에 견줄 바 못 된다.

18)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제주대 출판부, 1998), 503~505쪽.



다. 이들이 5대성을 이루고 있으며, 5대성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성씨 가운데는 류씨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문씨, 양씨, 임씨, 유씨 등이 20여 명씩 살고 있다. 그 밖의 성씨는 각 10여 명 미만이 살고 있을 뿐이다. 설촌 성씨라고 하는 고씨는 네 번째, 통물동네를 따로 설촌한 류씨는 여섯 번째, 통물당의 중단골인 김씨는 세 번째, 하단골인 강씨는 첫 번째, 여드렛당의 상단골 오씨는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류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는 아직도 모두 대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씨가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를 모두 제치고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씨는 숫자는 많아도 입촌이 늦어 발언권을 차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통혼권의 변화

설촌내력과 함께 주목해서 살펴야 할 것이 마을의 通婚圈이다. 통혼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느 지역의 여성을 신부로 맞아 들였고, 주로 어느 지역으로 시집을 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감산리에서는 어느 마을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였는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같은 마을 안에서 신부를 맞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1980년대 이전 시기의 통혼권은 창천·상창지역, 중문·색달·예래지역이 대부분이었다.<sup>19)</sup> 창천·상창지역은 다분히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감산리 사람들의 경작지가 많이 분포된 곳이어서 비교적 왕래가 많았으리라 보아, 이들 지역과 통혼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예래지역의 경우도 거리가 가까운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교통이 불편한 옛날에는 인근 마을과 혼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

19)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다. 그렇다고 하면, 거리가 먼 중문의 경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통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마을의 입지이다. 감산리 사람들은 兩村이라는 데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살았다고 한다. 이것이 지나쳐, 다른 마을 사람들로 부터 “감산윗 사름추록 뭇은 체 허는 되 없다.”(감산리 사람처럼 맑은 척 하는 데 없다.)는 비아냥도 들었던 것이다. 감산리 사람들은 적어도 해변사람(海村), 옷드르(山村) 사람과는 사돈을 맺지 말자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 그러한 의식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혼사를 결정할 때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닷가 마을인 예래는 과거 예래현이었던 만큼 예외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로 신앙을 들 수 있겠다. 옛날 대표적인 통혼지역이었던 창천·상창, 중문·예래 등의 공통점은 같은 계통의 당신을 모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통혼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같은 계통의 당신을 모신다는 것은 오래 전 시기에는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고 있었으리라는 짐작을 해 볼 수 있겠기에, 오랜 동안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통사회의 통혼권이라고 하는 마을들을 다시 살펴보면 상창, 창천·예래, 중문·색달 셋으로 나눌 수 있겠다. 상창은 통물동네 사람들이 주로 교류하던 곳이고, 창천·예래 그리고 중문·색달은 묵은터와 남당동네 사람들이 교류하던 곳이다. 통혼권이 당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 4. 당신앙의 변천 내력

오늘날에는 당신앙이 그다지 왕성하지 않다. 당을 찾는 이도 드물고 당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아는 이도 드물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단골집단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들이 단골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기존 자료집에 소개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신당별 당신상의 특징

### (1) 통물당(상창하르방당)

통물은 감산리 중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삼던 샘이다. 이 샘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니 마을 이름도 통물이 되었다. 통물 옆으로 신남밭 동네로 가는 길이 나 있는데, 통물을 지나면서부터 오르막을 이룬다. 이 오르막 일대를 당동산이라고 한다. 당이 있는 동산이라는 말이다. 통물의 서북쪽에 작은 숲이 있고, 이 숲에 당이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를 神木으로 삼는다. 팽나무 그늘 아래 자갈한 自然石을 두텁게 쌓아 올려 울타리를 둘렀다. 안쪽 울타리는 다른 곳보다 더욱 폭이 넓은데, 이 곳을 祭壇으로 삼는다. 紙錢이나 物色은 걸려 있지 않다.

이 당에서는 '동백자 남편들판 고나무 상대자 하로산'과 '서백자 광주서씨 부인' 2위를 모신다. 고나무상대자하로산은 통물 사람들의 生産·物故·戶籍을 관장하는 本鄉神이다. '하로산'은 곧 '漢擎山'이니 '漢擎山神'임을 알 수 있다. 山神은 또한 狩獵神이기도 하다. 본풀이에 따르면 당신은 한라산신이고 단골은 사냥꾼들이었다. 광주서씨부인은 그 성격이 모호하다.<sup>20)</sup> 부부가 동서로 나란히 좌정하고 있는 샘이다. 그러나 제단은 나뉘어 있지 않다.

祭日は 정월 14일, 8월 14이다. 祭物로는 메, 돌레떡, 다대떡 등을 올린다. 제물은 神位에 따라 달리해서 올린다. 메는 상궤에 사발메 1그릇, 중궤에 조금 큰그릇으로 1그릇, 하궤에 보시메로 1그릇을 올린다. 돌레떡과 다대떡은 상궤에 6개, 중궤에 2개, 서쪽에 2개, 심방 앉는 곳에 2개씩 올린다.<sup>21)</sup>

이 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장 늦게까지 전승해온 사람은 창천리 고

20) 동백자, 서백자 등의 명칭은 옛 중문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東便坐, 西便坐에서 비롯된 말이거나 東壁坐, 西壁坐에서 비롯된 말일 가능성이 있으나 분명치 않다.

21) 제보자는 상궤, 중궤, 소궤라 하였으나, 이는 상궤, 중궤, 하궤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위에 따라 돌레떡과 다대떡의 수효를 다르게 하는 까닭은 분명치 않다.

창학 심방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 뒤에는 창천리에 거주하는 女巫 오선진이 매인심방이었다. 지금은 매인심방이라는 존재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단골은 주로 통물동네 사람들이다. 상단골은 柳氏이고, 중단골은 金氏이며, 하단골은 姜氏이다. 상·중·하단골을 갖추었으니 감산리에서는 가장 세력이 컸고 또한 사실상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본향당 구실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당은 감산리에서 神靈이 가장 세었다고 전한다. 본래 이 당은 감산리 뿐만 아니라, 上倉里, 倉川里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당이었다. 지금의 위치에 당이 자리잡은 까닭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는 감산리 주민 일부만 다닌다.

신앙이 아직도 남성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당신본풀이가 남성신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과 일치한다. 남성 중심의 전승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은 이 밖에도 더 있다. 남성들의 구전을 통해서도 설촌 내력과 함께 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된다.

## (2) 도고세미일렛당

감산리 동동네 마을 남쪽 계곡에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샘이 있다. 이 샘을 ‘도고세미’라고 한다. ‘도고세미’ 입구 오른쪽의 커다란 바위 밑에 당이 마련되어 있다.

바위 위에는 팽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이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지전과 물색은 여기에 걸려 있지 않고, 제단 왼쪽 자그마한 나무에 걸려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제단은 없으나, 윗면이 평평한 바위가 있어 제단으로 삼고 있다. 牛馬의 출입이 어렵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므로 올라리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당을 흔히 일렛당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도고세미 일렛중저’를 모신다. 본풀이에 따르면 남성신인 산신도 함께 모셨겠다.

제일은 정월 17일(新過歲祭), 5월 17일(마불림제), 8월 17일(秋夕), 동짓

달·선달 17일(속대전)이다. 설이나 추석 때는 명절을 지낸 뒤 처음 맞는 7일 날 제사를 모시는 셈이다. 그밖에도 일렛당이니 만큼, 매 7일에 날을 보아 다닌다. 신과세제와 마블림제 등 규모가 큰 제의를 매해 정해진 날에 마련한다는 점은 다시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이는 이 당이 단순한 일렛당이 아니라 본향당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제물로는 메와 들레떡 등을 올린다. 매킨심방의 계보는 전해지는 바 없다. 다만, 이 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장 늦게까지 전승해온 사람은 창천리 교창학 심방으로 조사된 바 있다.

상단골은 본풀이에는 묵은터 첩칩(최씨 집안)이라고 했으나 묵은터 고칩(고씨 집안)이라고 하는 전승이 유력하다. 본래 이 당은 감산리, 창천리, 상창리, 上峯里 사람들이 함께 모시던 당이다.<sup>22)</sup> 추정컨대 창천, 상에 사람들과 함께 모시는 당이라 지금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셨다고 하는 점을 통해서도 이 당이 단순한 일렛당이 아니라 본래는 본향당과 같은 성격을 지닌 당이었음이 확인된다.

한라산신에 해당하는 남성신을 본향신으로 모시다가 일렛당신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는 예래계의 영향이 강하게 미쳤겠다. 즈단리와 통혼이 이루어지다가 점차 통물혼 즈단리, 묵은터는 예래 지역으로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특히 도고세미의 경우에는 당신앙의 중심이 예래계 일렛당 신앙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여기에는 통물당이 사실상의 본향당으로 성장했던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3) 호근이두루 으드렛당

동동네 鷄林精舍 앞 냇가 절벽 틈에 있다. '도고세미'에서 동쪽으로 불과 50~70m 떨어진 곳이고, 이곳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상록수림이 계속 이어진

<sup>22)</sup> 창천리 '닥뱃할망당'은 이 당에서 가지 가른 당이다. '닥뱃당'의 神名은 '닥뱃할망 일렛증저'이며, 제일은 역시 매 7일이다.

다. 바위와 팽나무를 의지하여 당을 마련하였다. 팽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다. 바위 밑에 자연석 제단을 두었으며, 신목에는 물색을 걸어 두었다.

이 당은 ‘호근이마루 으드렛당’이라 한다. 이 당에서는 ‘예리뉘뉘 밧 제상곡 하로산, 허사복이 상마을, 허좌수 하마을, 황토나라 황토부인’을 모신다.

제일은 매월 매 8일이다. 매인 심방의 계보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 없다. 다만, 이 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장 늦게까지 전승해온 사람은 창천리 고창학 심방으로 조사된 바 있다. 상단골은 吳氏이다. 감산리 사람들이 모시는 당이다. 창천리와 연고가 있는 남당 사람들이 모시는 당이어서 지금 위치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 2) 당신앙과 공동체의 관계

위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세 신당과 단골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물(본향당): 류씨 · 김씨 · 강씨

도고세미(일땃당): 고씨 | 호근이마루(으드렛당): 오씨

앞에서 공동체의 내력을 살핀 바와 관련지으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이것은 물론 당신앙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이동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당신앙의 경우, 집단에 따라 신앙이 다를 수는 있어도 신앙의 유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통물 본향당의 세 단골이 성립된 것은 1650년 이후의 일이다. 류씨 · 김씨 · 강씨 세 성씨가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시기가 1650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당신본풀이를 이루게 된 것은 아무리 앞당겨도 17세기 이전으로 넘어갈 수 없다. 한편 류씨나 김씨보다 고씨가 먼저 입촌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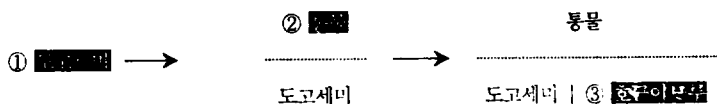
23) 당신의 계통, 신명 등으로 보아 호근리와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호근리에도 오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물보다 묵은터에 먼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통물 본향당은 묵은터 사람들이 모시는 도고세미 일렛당보다 나중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고세미 일렛당은 가장 역사가 오랜 당이다. 이는 묵은터 고씨가 먼저 입촌하였다고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도고세미 일렛당이 이 마을의 본향당이였음도 알 수 있다. 구전에 따르면 고씨와 류씨가 함께 살다가 갈등이 생겨 류씨가 묵은터를 떠나 통물에 따로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씨와 류씨가 따로 살기 이전, 즉 적어도 1650년 이전까지는 묵은터에 함께 살면서 도고세밋당을 본향당으로 섬겼을 것이다.

오씨는 가장 뒤늦게 이 마을에 들어왔으니 호근이므루 으드렛당은 다른 두 당에 비하여 늦게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앙의 성격이나 단골이 기존 두 당, 단골들과 전혀 무관한 까닭도 이해되는 바 있다.

묵은터에서 도고세밋당을 함께 모시던 두 집단이 마을을 분리하면서 제각기 별도의 신당을 두고 상단골 구실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도고세밋당은 고씨 집안이 상단골이고 다른 성씨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였지만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단골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역시 도고세밋당의 역사가 오래고 인근에서 중심적인 구실을 하였다는 뜻이겠다. 신당의 설립 순서를 따지면 도고세미-통물-호근이므루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당신앙과 공동체의 관계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신당에서 이루어지는 당신앙이 서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신본풀이를 보면 당신의 계통이 血緣的인 관계로 系譜化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松堂系가

있고, 주로 남계주군과 서귀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漢擊山系, 딸의 계보만 존재하는 예래系, 아들·딸의 계보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금악系 등이 있다. 당신의 계보는 곧 당신안의 계통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원문 그대로 보기로 한다(편의상 번호를 붙였다).

<상창하르방당> ① 감산, 상하창, 상예이구, 모두 이 토조관일 댁입니다. 본은 아방국 어명국. 하예리 아방국은 동백자 하로산, 어명국은 족다리 대서부인. 난산국은 오숫애기 단모을. ② 아방국 난산국은 할로영주 신거리친발, 안쭈뫼 올축 삼월 열사홀날 아홉성제 솟아나고, 큰성님은 정이 수산 물레머르 하로산, 돌차는 물미 제석천왕 하로산, 싯채는 예촌 도병숫도 하로산, 닛채는 동서홍리 제산국 하로산, 다섯차는 중문이 동백장 하로산. 오숫채는 하열리 하로산, 일곱차는 날뢰 제석천왕 하로산. 오덥채는 통천이 고나모상태즈 하로산. 아홉채 색다리 제석천왕 하로산. 이젠 또 하열리 당올래 하로산이. ③ 딸이 오숫성제 솟아나고, 큰딸은 난드르 당발멀리 일뢰중즈. 돌차는 망발 중즈님. 싯채는 번내 일뢰중즈. 닛채는 사계 창발할망. 다섯차는 감산이 도그셈이 일뢰중즈. 오숫채는 공셈이 서리도 공수청. 이처록 오숫성젠디 감산이 도그셈이 일뢰중즈 가치 갈랐읍니다. 경흐난 닥발할망 일뢰중즈 ④ 동백즈는 데데오름 짐파도 상모을. “난산국은 어디냐.” 아방국은 동백자 하로산의 오숫성제중에 다섯챗딸이 아방국에 걸리나고, 나고갈 때엔 할로영주 닥발멀리 속발애개로 가. 다섯챗애기 서방이 데데오름 짐파돈디 초천관 짐존윗아들. 시슬 적부터 왕대총 맨드라, 총쏘기만 설련호고 열다섯 시오세 되니, 아방눈에 걸리 나, 나고갈 때엔 우으로는 선달피 알로는 황골피, 귀약동 남늘개, 성근토지 상토지 둘러차고, 소리 좋은 마세조총 둘러매여, 할로영주 삼신산을 치걸어 큰장올이 셋장올리 치걸어, 닥발멀리, 속발애개 올라가니, 밤중 삼경이 우는 소리 나니, 귀으사 드러가고 보니, 처녀가 앓아 울엄구나. “귀신이나 생인이나?” 처녀가 끔찍하고 “귀신이 어디 있겠소 생인입니다.” “그영호민 난산국이 어딜러냐?” “아방국은 동백즈 하로산, 어명국은 족다리 대서부인, 다섯챗 딸인디, 아방 어명 눈에 걸리나고, 죽자곤 옹호 곤데



당헌 배 올수다.” “나이 땃술이나?” “열다섯이 올수다.” “나도 초천관의 짐준윗 아 들인디 아방 눈에 골리나고, 옹헌 곤 데 당헌 배 올수다. 너가 채비를 출려주건 아방 국으로 드러가라.” “드러갈 수 없소” “그래면 느광 나광 혼날 혼시 혼동잡이니, 느 도 미장이요, 나도 미장인디 부배간을 삼아보자.” “그영헌건 그영흡서.” 부배간을 삼고 인간츠로 느리시자. 안쏘목, 밧쏘목, 옷쪽 남게 온 췌지심, 묶은 이목, 상장께, 도느리고, 쳇망어음 구슬 즈배낭 아래 빈대여보난, 주침치 주동지에 가 점제호고 유월 쭈가 읍어지니, 산짓구석 도느리고, 그 밤을 유숙하여 그 날이 샌직, 조반식스 상을 받아 싣더니마는 더더오름 애개기에 백시슴이 사시니, 마세조총 둘러받아 쏘 으니 죽어. 뱃겨놓고 간내석석 안침을 빼여다가 조반 반찬 해엿더니, 대오방 수천 리 비가 오라. 방천시위 지고 끄서가단 도그셈이 점지하여. 분향으로 점지하여. 상 단골은 감산이 목은데 고칩이요 감산 상하창 분향으로 위로호다 갈라 볼 때는 창 천이 번내칩 오당장이 상단골이 되여지고 상하창, 상열 이구, 만민 백성이 위로호 는 토조분향은. 정월이라 예리렛날 신구관 정주무난 과셋죄로 위로호고, 오월 예리 되는 마불림으로 위로호고 백록 팔월 예리렛날은 추석으로 위로호고, 동짓돌, 셋돌 에는 세경 암대전땅 조소농업 널은 날래, 담아드린 역개. 속대전 받는 분향입니다.

안덕면 창천리 남무 고창학 구송(『무가』, 687~690쪽)

이 자료는 ④ ‘도고세미 일렛당’을 중심으로 ③ 예래계 일렛당의 계보, ② 한라산계 당신의 계보, ‘닥밭할망당’ 등에 대한 사항이 두루 언급되고 있 다.<sup>24)</sup> 덕분에 감산 마을의 당이 어떤 계보와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감산리의 당은 각기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 한라산계, 예래계가 있고 특정 한 계보가 설정되지 않은 으드렛당도 있다.

첫째 漢拏山系이다. 한라산계는 한라산에서 아홉 형제가 솟아나 도내 여 러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고 한다. 순서대로 제시하면, 성산읍 수산리, 애월읍

24) 이 자료를 ‘상창하르방당’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도고세미 일렛당 본풀이에 해당한다. 한 편 현용준은 『사건』에서 도고세미 일렛당을 감산·창천일렛당으로 소개하였다.

수산리, 남원면 예촌리, 서귀포 호근리, 서귀포 중문리, 서귀포 색달동, 서귀포 예래리, 안덕면 통천리, 대정읍 일파리 등이다. 통천리 당신은 한라산계 8男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래계이다. 한라산계의 7남인 상하예리 당신이 딸 여섯을 낳았는데, 이들이 각각 당신이 되어 또 다른 계보를 형성하였다. 이들이 좌정하고 있는 곳을 서열순으로 제시하면 대평리, 상예리, 사계리, 화순리, 감산리, 하예리, 창천리 등이다.

한라산계가男神으로 계보가 이루어짐에 비해서, 예래계는女神으로 계보가 이루어진다. 이 중 5女가 바로 감산리 '도고세미 일뤼증저'에 해당되는 신이다. 그 5녀로부터 가지 갈라간 것이 창천리 일뤼당신인 '그정또 닥뱃한집'인 것이다. 이렇게 당을 가지가른 시기는 구전으로는 1870년경이라고 한다.<sup>25)</sup> 이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감산리와 창천리의 경계가 조정된 1915년에서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벗내칩 오씨가 당을 가지 갈랐다고 하지만 그들이 창천마을을 대표하였을 따름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닥뱃 일뤼당의 경우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는 여성 전용 신당이었다고 한다. 남성 심방도 출입이 금지되어 제의를 할 때는 고창학 심방의 부인이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감산 도고세미 일뤼당도 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통물당의 하로산신은 예래본향당 하로산신의 동생으로 계보화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고세미 일뤼증저는 통물당 하로산신의 조카가 되는 셈이다.

25)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1972년에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한 바 있다.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倉川里學術調査』, 『國文學報』 4輯(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72). 그 내용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제주도부락지(Ⅲ)』에도 영인 수록되었다. 해당 내용은 이 책 385~390쪽에 실려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 조사당시인 1972년을 기준으로 대략 100년 전쯤에 도고세미에서 닥뱃을 가지가른 것이라는 계보가 있었음을 적고 있다. 심방들 사이에 닥뱃이 있어서 갈라왔다는 설도 있다고 하였다.

26) 앞서 밝힌 대로 '벗내'는 화순리에서 안덕계곡을 가리키는 지명이면서 화순 마을 전체를 의미하는 지명이기도 하다.

27)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앞의 책.

이것이 설령 감산리 묵은터동네 사람들이 예래리 쪽과 교류가 많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묵은터동네가 통물동네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당신앙도 그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래계의 영향이 강화된 뒤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예래본향당과 통물당의 하로산은 본래 하나였다가 갈리어 형제 관계로 설정된 것일 수 있다. 도고세미나 통물당에는 똑 같이 하로산을 모셨었는데 도고세미의 하로산은 김존위(김존윗) 이들로 바뀌었고 통물당은 그대로 남았다. 도고세미의 경우, 하로산이 김존위 아들로 바뀌면서 주도권은 다시 예래본향당에 뿌리를 둔 여성신 일뤼중저로 넘어가게 되었다. 도고세미에서는 여성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들과는 다른 계통을 보이는 것도 있으니, 바로 '호근이마루 으드렛당'의 경우이다. 이는 호근리에서 가지 갈라온 것으로, 특히 으드렛당이라는 점에서 앞의 당과 성격을 달리한다. 으드렛당은 흔히 뱀신을 모신다고 알려져 있다. 구전상으로는 뱀신을 모시는 것은 창천리가 서쪽 경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감산리에서도 칠성을 모시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통물당 본풀이에서는 동백자 하로산이 뱀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은 뱀신을 모시는 당이 아니다. 으드렛당의 한 부류는 처녀당이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도 처녀당에 해당한다. 처녀당 가운데 심방이 원한을 품은 채로 죽어 당신으로 제향을 받는 사례에 해당한다.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고전적본>, <양씨아미본> 등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유형의 본풀이는 뱀신을 모신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토산으드렛당 본풀이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본풀이가 동계의 것이며 결국 그 신앙도 동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씨 집안이 단골이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창천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도고세미를 가지갈라 닥밭 일뤼당을 설립한 그 오씨

집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닥밭 일렛당을 가지가른 이는 벗내칩 오씨였다. 남당동네 오씨들도 벗내칩 사람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창천리 오씨 집안 사람들은 도고세미 일렛당을 가지 갈라 갔는데, 감산리 오씨 집안 사람들은 호근이므루 으드렛당을 모셨다고 하니 엇갈리는 바가 있다. 이를 결정적인 단서로 삼아 일단 남당 일대에 거주하는 오씨 집안 사람들은 창천리 오씨들과는 별개의 집단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토대로 공동체와 당신앙의 변화를 함께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묵은터동네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시기에는 당도 하나였다. 이때의 당은 한라산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당이었다. 통물동네가 따로 생기자 마을이 둘이 되었으며, 결국 당도 둘이 되었다. 물론 이들의 당은 모두 한라산신을 모시는 당이었다. 그러나 뒤에 도고세미당은 본향당과 일렛당을 겸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다시 한 마을로 통합되면서 통물동네의 통물당이 한라산신을 모시는 본향당이 되고, 묵은터동네의 도고세미당은 일렛중저를 모시는 일렛당이 되었으며, 새롭게 형성된 남당동네의 호근이므루당이 으드렛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28)</sup> 결국 한 공동체에 각기 다른 유형의 당신앙이 적절하게 갖추어지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루어진 셈이다. 공동체의 변화와 당신앙의 변화가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동체의 주생업이 수렵에서 농업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을 터이지만 당신앙에는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주관심사도 바뀌었을 테지만 이 역시 당신앙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라산신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는 대신 일렛당 신앙이 강화되어 온 흐름만큼은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28) 도고세미당이 통천(통물)과 감산의 일렛당이라고 하는 예도 있는데, 이는 결국 감산 묵은터만의 일렛당에서 마을이 재통합되자 감산 전체를 아우르는 일렛당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섯촌 통천·감산이 도고세미일렛중저로 가고 오섯촌 창천이 닥밭할망일렛중저로 가고 일곱촌 열위 전신당일렛중저로 가고.”(『사전』, 749쪽, 중문 강철년)

## 5. 당신본풀이의 구비역사적 성격

당신본풀이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충실한 구비역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신본풀이가 그 자체만으로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얼마나 전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서 그 해답을 우선 마련할 수 있다.

현재의 감산리가 과거에는 감산리와 통천리라는 두 마을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분명히 말하자면 설촌 당시에는 한 마을이었다가 두 마을로 나뉘어 오랫동안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멀지 않은 과거에 다시 한 마을로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본풀이 문면에 그대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구전에는 충분히 반영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감산리 설촌유래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약 700여 년 전 고씨와 류씨가 감산리에 들어와 바로 이웃에 살며 사냥을 업으로 삼아 서로 도우며 살았다. 이들은 항상 함께 사냥을 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류씨가 고씨를 짐승으로 착각하고 활을 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실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한 고씨 후손들이 류씨를 죽이고야 말았다. 이로 인하여 두 집안간에 갈등이 커져 결국 류씨 집안 사람들은 통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두 집안 사람들이 화해를 하여 마을의 평화가 완전히 깨지는 일은 없었다.

고씨와 류씨가 감산리에 들어와 함께 살다가 갈등이 생겨 따로 살았다는 내용이다. 처음 살던 곳은 묵은터라고 하는 동네임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류씨가 옮겨간 곳이 통물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통천리이다. 본래 한 마을이었으나 두 성씨의 갈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었던 사정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동네를 달리하였을 뿐이었으나 뒤에는 아예 행정적으로도 분리되었던 셈이다.

후손들은 이 전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도 입에 올리기를 꺼

려한다. 설촌 유래라기보다 묵은터동네와 통물동네가 나뉘게 된 내력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 사냥을 하다가 류씨가 실수로 고씨를 쏘았고 그로 인하여 마을이 나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신본풀이에서 찾을 수 없던 것이다. 통물당 본풀이는 마을이 분리된 내력을 다루지 않았으며 독립된 마을을 이룬 뒤의 사정을 담고 있을 뿐이다.

본풀이에서 상단골 류씨, 중단골 김씨, 하단골 강씨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입촌 순서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다. 늦은 시기에는 성씨별 분포가 크게 달라졌지만 단골의 서열은 바뀌지 않았다. 이는 선주 집단에 이주 집단이 수용되고 아울러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도고세밋당은 묵은터 고씨가 상단골이라고 하였고 통물당은 류씨가 상단골이라고 하였다. 이는 묵은터에 고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고, 이어 통물에 류씨가 들어와 살았다는 족보상의 기록과 일치한다. 다만 족보에서는 고씨나 류씨가 묵은터에서 함께 살다가 류씨가 따로 통물로 옮겨 살았다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도고세밋당 본풀이에서는 굳이 마을이 분리된 내력을 다루지 않았다. 다른 성씨가 주요 단골로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묵은터동네가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

호근이뭇당 본풀이에서는 더욱 역사적 체험과 관련된 사실을 찾기 어렵다. 오씨 집안 사람들이 뒤늦게 감산리에 편입된 만큼 본풀이에서도 공동체적 유대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통물당이나 도고세밋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 주생업이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풀이와 설촌 유래 모두 공동체의 주생업이 수렵이라고 하였으나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설촌은 매우 늦은 시기여서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오랜 전승을 보수적으로 지속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신본풀이와 역사적 사실을 연관지어보면 본풀이가 마을의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본풀이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을의 역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단골의 구성 정도가 그나마 마을의 역사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통물의 경우 설촌 유래에서 확인되는 류씨와 고씨의 갈등은 본풀이에서 하로산과 황서장군이 벌인 활쏘기 경쟁을 연상시킨다. 활쏘기 사고로 인하여 류씨와 고씨가 사는 곳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두 신은 활쏘기를 통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단골의 활쏘기 경쟁을 통한 땅 차지와 신들의 활쏘기 경쟁을 통한 땅 차지,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본풀이에서 기존 신격과 경쟁하여 승리함으로써 당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은 공동체의 이주에 따른 충돌과 갈등 조정의 내력을 신화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와 당신앙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우선 신당의 위치와 취락의 위치가 상통하는 바가 있어 주목된다. 감산 마을의 신당은 주로 食水源인 샘 근처에 있다. '통물'에는 본향당이 있고, '도고세미'에는 '일뤼당'과 '오드랫당'이 있다. '남당물'에는 '남당'이 있었다. 예외적으로 '즈베남송이'에만 당이 없다. 그런가 하면 각 동네도 이들 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중동네는 '통물'을 식수원으로 삼고, 동동네 서쪽 마을은 '도고세미'를 식수원으로 삼으며, 서동네는 '즈베남송이'를 식수원으로 삼았다. 또한 동동네 동쪽 일대를 '남당'이라 하는데, 이는 '남당물'을 식수원으로 삼았던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로 보아 식수원이 되는 샘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을 형성의 주요 근거가 식수원인 샘임을 말해 주며, 신당은 또한 대체로 식수원 근처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통물도 물이 좋기는 하지만 묵은터만큼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이 좋은 묵은터에서 먼저 설촌이 이루어지고 사정에 따라 뒤늦게 통물에도 설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된다. 그러나 당신앙이 물과 특별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sup>30)</sup>

29) 이처럼 식수원과 당을 주요 근거로 삼아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은 다른 마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감산리처럼 자세한 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감산리는 제주도의 마을 형성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소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본풀이가 당신앙과 공동체의 내력을 반영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본풀이와 設村由來 등을 두루 종합해 볼 때 당신앙의 변화와 감산리의 역사를 어느 정도나마 재구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럿 포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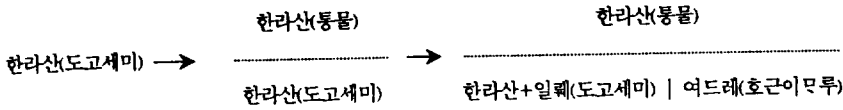
특정 성씨 집단의 조상신본풀이가 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공동체의 본향당신으로 바뀌어갔으리라는 가설은 참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고세미와 통물 두 신당의 경우에서 모두 확인된다. 도고세미 일뤼당 본풀이를 보면, '목은터'에 처음 입주한 高氏가 모시기 시작했으니, 그 때는 그 고씨 일가의 수호신이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자손들이 증가하면서 이 신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氏族守護神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목은터 고씨가 입주한 것은 700여 년 전이라 하고, 다른 성씨 등이 입주하였다 하니, 이 후래 씨족들이 선주 씨족인 고씨의 수호신을 공동으로 숭배하게 되어 감산리의 부락수호신의 성격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정은 통물당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다. 류씨는 입촌 초기에는 기존의 고씨 집단의 당신앙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씨와 고씨 집단의 갈등으로 류씨는 따로 떨어져 나와 통물동네를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 별도의 조상을 모시게 된다. 류씨가 조상신으로 모시던 동백자 하로산은 김씨, 강씨 등이 입주하면서 다시 공동체의 본향신이 되었다. 한동안 별개의 마을을 이룰 정도로 신앙과 인적 교류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통물당이 인근 지역 전체의 본향당으로 상승한 반면 도고세미당은 일뤼당으로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30) 다만, 도고세미일뤼당신이 냇물에 휩쓸리다가 이른 곳에 좌정하였다고 하는 점은 비록 샘과는 연관이 없어도 물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고세미일뤼당을 가지 갈라가당을 설립한 창천리 닥밭일뤼당이 같은 도고세미의 상류에 해당하는 냇가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31) 도고세미 일뤼당신이 고씨 조상신에서 마을의 본향신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정은 현용준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창천리학술조사」, 『國文學報』 4輯(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72). 학생들의 조사보고서이기는 하지만 문면에 필자가 현용준임이 드러나는 점을 고려한다. 현용준은 1959년에 고창학 심방에게서 본풀이를 채록한 바 있으며



당신의 노정은 공동체의 이동 경로, 혹은 통혼 내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통물당 하로산신의 노정은 공동체의 이동 경로를 암시하고 있으며, 도고세미 일뤼중저의 이동 경로는 여성들의 출가 내력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한라산신의 출현에서 좌정하기까지의 노정은 공동체의 이동경로를 닮았다. 공동체의 이동은 남성 중심의 이동이다. 일뤼당신의 출현에서 좌정까지의 노정은 여성들의 통혼내력을 닮았다. 그런가 하면 당신의 계보를 통해, 호근리·중문리·색달리·상하예리 등이 감산리와 신앙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상호 교류가 활발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가까운 곳에서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던 예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고세미 일뤼당이 본래 한라산신을 모시던 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가 하면 이보다 늦게 생긴 통물당이 한라산계 계보에서 예래 다음의 서열을 차지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단계에서 마을이 둘로 나뉘면서 각자 한라산신의 계보에서 우위를 다투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셋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통물 동네가 계보상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반면 묵은터동네는 다시 예래의 일뤼당신앙을 끌어들이며 별도의 계보를 꾸미게 되었다. 묵은터동네는 지속적으로 예래와 연관성을 유지해왔으나, 통물동네는 마을이 분리되자 그 연관성이 약화되고 점차 단절되

13년 뒤에 재조사할 기회를 얻었던 셈이다. 그리고 창천 다투일뤼당을 조사하다보니 그 전신인 감산 도고세미 일뤼당의 내력까지 거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본풀이와 설촌유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산리 입촌 조상들이 수렵을 생업으로 삼았으리라고 추정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늘날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신앙이나 본풀이가 당대 사회를 바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이다.

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신에 통물동네는 상천리, 서광·동광리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당동네는 본래부터 창천리에 속하였거나 창천리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다. 이러한 양상은 마을의 입지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닷가 마을과 중산간 마을 사이에 위치한 까닭에 비록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나 마을이 아래, 위로 분리되기도 하였고 당신양도 이를 뒤따랐던 셈이다. 그리고도 오랫동안 각기 바닷가 마을, 중산간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촌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나, 현전하는 당신양이나 당신본풀이는 후대에 설촌했다고 하는 이들이 함께 가지고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감산리의 경우 16세기말에야 설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주요 성씨가 이 때 들어온 것은 사실에 근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존 본풀이를 그대로 들여와 새롭게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래 조상신양이었던 것을 당신양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본풀이로 구성하여 전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역사를 반영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사람들의 갈등에 따라 마을이 나뉘는 경우, 특히 그 사정이 절그러운 내용인 경우에는 본풀이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통물당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한편 통물당과 도고세밋당의 단골들은 갈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나뉘고 이로 인하여 신앙적인 교류가 차단됨으로써 동계의 당신양을 각기 독자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6.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얻은 원칙적인 결론만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양이나 본풀이의 결합양상을 통해서 당신양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의 변화, 관심사의 변화 등은 쉽사리 파악하기 어

럽다. 본풀이는 변화를 반영하는 데 그다지 빠르지 못하다. 이는 본풀이가 전승되어온 오랜 세월은 이러 저러한 변화가 드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신앙도 직접적으로 변화를 반영하기보다 주신격이 교체되는 양상으로 반응한다. 공동체 신앙에서 개별적 신앙으로, 양성신앙에서 여성신앙으로 바뀐 당신앙의 주요 변화가 신격의 교체라는 현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 당신앙과 본풀이를 통해서 마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복원해낼 수 있다. 특히 마을의 분리와 통합, 갈등 등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마을의 역사를 토대로 당신앙과 본풀이의 변천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당신앙과 본풀이를 통해 마을과 마을의 관계가 어떠한지 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당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주요 인적구성의 변동 내력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신의 노정을 통해서 주로 이주의 역사를, 여성신의 노정을 통해서 주로 통혼의 내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나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당신본풀이와 당신앙의 내력이 마을의 역사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러 있다.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마을의 설촌 역사가 지나치게 후대로 잡혀 있다. 일러야 조선시대 초기이고 대개는 중기 이후로 이야기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실제로 설촌이 이렇게 늦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당신본풀이와 당신앙의 내력은 종종 차용된다. 옛날부터 공유하던 본풀이와 신앙을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가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일치하기 어렵다. 본풀이와 신앙에 반영된 생업, 시대적인 특성 등이 바로 해당 공동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셋째, 기억의 편의, 혹은 후대의 사정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다. 신앙의 가지가름, 당신의 계보, 마을 설촌의 내력 등이 모두 그럴 수 있다.

당신앙과 본풀이, 그리고 설촌 관련 전승에는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변화가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일반적인 양상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결과는 두루 참고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살필 때는 철저한 검증이 따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 5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9.
- 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감산향토지』, 감산리, 2002.
- 南濟州郡·濟州大學校博物館,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南濟州郡·濟州大博物館, 1996.
-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 출판부, 1998.
- \_\_\_\_\_,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4.
-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 『倉川里學術調査』, 『國文學報』 4輯, 濟州大 國語國文學科, 1972.
-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신구문화사, 1980.